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 (1)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 (2)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 (3)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 (4)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 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 (2)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받고 못들은체 하려나
- (3)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두신 영원한 집이있어
죄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 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렴 주 예수 앞에 오라

6월 14일 (금) 기도 담당 : 백운성 집사

2019년 6월 13일 (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83장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봉 독	예레미야 6:16-19
찬 양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명자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 송	528장
축 도	다 같 이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6:16-19>

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3일 (목)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저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믿으며 기꺼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 자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린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영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그리할 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신으로 지어진 새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새 예배당이 새문안에 속한 모든 권속이 영육간 평안을 공급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시며,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개, 보수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고, 헌당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간섭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 식민지, 민족동란을 거치면서 피해를 입은 조국에 경제적 부흥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대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로 혼란과 분열과 불안의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이 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